

#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다윗왕  
(1부)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Alastair Paterson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21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다윗은 늘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사백 명의 부하들과 광야에 있는 커다란 동굴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거의 붙잡힐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인 도엑이 제사장들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어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지요. 감히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도엑이 나서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팔십오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어요.



어느날, 사울이 다윗을  
찾아 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  
로 그곳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  
이었어요. 사울은 혼자  
였지요.



그 동굴에서 다윗은  
쉽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만  
잘라내었어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소리쳤어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다시 분노에 들끌어 삼천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어느 날 밤, 다윗과 그의 부하인 아비새가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사울은 곧히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절하며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을 떠났어요. 그는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소리 질렀어요. 또 다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첫번째 왕으로, 다윗을 이  
스라엘의 두번째 왕으로 기름부은  
사무엘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때  
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을 공격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자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었어요.  
그 날밤 사울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버렸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소. 내일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쓰러지고 말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사  
람들은 도망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어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죽었지요.



사울은 활에 맞아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사울은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지 전에”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그 부하는 너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성벽에 매  
달아 놓았어요. 이스라  
엘 용사들이 그 시체를  
가져와 화장시킨 후 묻  
어 주었지요.







이 슬픈 소식을 접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통곡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로 끝까지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 다윗왕 (1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31장, 사무엘하 1, 2 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